

한국십진분류법 제6판 관광학 분야의 분류체계 수정 전개 방안*

The Improvements of the Tourism Field in the 6th Edition of KDC

김 정 현(Jeong-Hyen Kim)**

<목 차>

- | | |
|------------------------|-------------------------------------|
| I. 서론 | 2. 관광학의 분류체계 비교 분석 |
|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 III. KDC 관광학의 분류체계 특성 및 수정
전개 방안 |
| 2. 연구방법 | 1. KDC 관광학의 분류체계 특성 |
| 3. 선행연구 | 2. KDC 관광학의 분류체계 수정 전개 방안 |
| II. 관광학의 학문적 특성 및 분류체계 | IV. 결론 |
| 1. 관광학의 학문적 특성 | |

초 록

이 연구는 관광학의 학문적 특성과 분류체계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관광학의 분류특성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KDC 제6판 관광학의 분류체계 수정 전개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관광학의 학문영역은 관광일반, 관광주체, 관광객체, 관광매체로 구분되고 있지만, 분류체계는 대부분이 관광학을 관광일반과 관광객체 일부에 한정하고 있으며, 관광객체나 관광매체는 해당 주제에 분산 배치하고 있다. 둘째, 국립중앙도서관의 관광학 유별 자료 분석결과, 상대적으로 관광경영, 관광유형, 관광개발, 관광심리 및 관광객, 관광산업, 컨벤션 등의 주제어 빈도수가 높게 나타났다. 셋째, 분류항목의 수정 전개는 원칙적으로 관광학의 학문적 특성과 주제어 분석을 바탕으로 하였으며, 혼란을 줄일 수 있도록 가능한 한 기존의 KDC 분류체계를 유지하였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상관색인어도 추가하였다.

키워드: 관광학분류, 한국십진분류법, 듀이십진분류법, 미국의회도서관분류법.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general problems concerning the tourism field in the KDC 6th edition based comparative analysis academic characteristics and classification system, and suggested on some ideas for the improvements of them. Result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cademic field of tourism is generally divided into a general tourism, tourists, tourism attraction, and tourism media, but classification system of tourism is limited to parts of tourism attraction and a general tourism. Tourism attraction and tourism media are dispersed among the subject. Second, I analyzed on tourism from the collection database at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Based on analysis of the data, the keyword frequency of tourism management, type, development, psychology, industry, and convention etc. was relatively high. Third, modified classification of items was basically performed through the academic characteristics of the tourism and the keyword analysis, and maintaining the existing KDC classification system caused less confusion as much as possible. Also, based on this matter was added to the relative indexes.

Keywords: Tourism classification, KDC, DDC, LCC.

* 이 논문은 2012년도 전남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전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jhgim@chonnam.ac.kr)

• 논문접수: 2014년 2월 18일 • 최초심사: 2014년 2월 25일 • 게재확정: 2014년 3월 14일

I. 서론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대부분의 문헌분류법은 주제가 아니라 학문영역에 따른 분류체계를 주된 원칙으로 설계되어 있다. 그런데 관광학과 같이 일부 학문에 있어서는 독자적인 학문영역이 크게 발전하기 이전에 분류항목이 설정되어 다양한 관점의 학문영역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관광학의 경우 독자적인 학문영역을 강조하여 분류항목이 전개되었다면 관광학의 다양한 영역들을 포함하여 관광학에서 세목을 전개하였겠지만, 실제 분류법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문헌분류법이 관광학이라는 항목에서는 극히 일부 영역만 다루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분류표라고 할 수 있는 한국십진 분류법(KDC)도 예외는 아니다.

한편 KDC는 처음부터 DDC를 바탕으로 주류를 배치하였으며, 우리의 실정에 맞게 강목부분을 대폭 수정 전개하였다. 그 후 다섯 차례의 분류표 개정작업이 있었으며, 판이 바뀔 때마다 특정 분류항목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정 전개 방안을 제시한 연구가 있었지만 관광학 분야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KDC 제6판 관광학의 분류 적용현황을 분석해보면 세목이 미비하여 동일한 분류기호에 상이한 자료가 집중되어 있어 분류의 의미가 반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이 연구는 관광학의 학문적 특성과 분류체계, 국립중앙도서관의 KDC 유별 자료현황 및 주제어를 분석함으로써 KDC 관광학 분야의 분류체계 수정 전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이 연구는 KDC 제6판 관광학 분야의 분류체계 수정 전개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첫째, 관광학 관련 학술문헌을 바탕으로 관광학의 학문적 특성과 연구영역을 분석한다.

둘째, 관광학의 연구영역을 바탕으로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연구분야 분류표」와 교육과학기술부의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KDC를 비롯하여 DDC, UDC, LCC, NDC 등의 관광학 분야 분류체계를 비교 분석한다.

셋째, 국립중앙도서관의 「대한민국 국가서지 2012」 가운데 관광학 분야 자료 9,423건을 추출하여 KDC 유별 자료현황 및 주제어를 분석한다.

넷째, 앞서 분석한 관광학의 학문적 특성 및 분류체계, 유별 자료현황 및 주제어 분석을 바탕으

로 KDC 관광학 분야 분류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수정 전개 방안을 제시한다.

3. 선행연구

관광학 분야의 분류체계와 관련이 있는 연구를 중심으로 최근의 연구동향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관광학 분야의 분류체계 연구와 관련하여 이지연과 김정현은 관광학의 연구영역을 관광일반, 관광주체, 관광객체, 관광매체의 4개 분야로 구분하여 새로운 분류체계를 설계하였다.¹⁾ 이는 기존 분류법의 수정이나 개정이 아니라 관광분야 정보센터나 관광전문 데이터베이스구축 등을 위한 분류체계에 설계되어 있다. 조은정은 국내 주요 4개 관광정보 사이트의 디렉토리를 분석한 후 인터넷 관광분야 분류체계 개선안을 제시하였으며,²⁾ 이는 인터넷 관광정보 분류체계 개선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관광분야의 일반문헌을 포괄적으로 분류하기에 한계가 있다. 또한 김사헌의 관광학 분류체계,³⁾ 권문호의 관광 분류체계,⁴⁾ 정유경 등의 호텔외식분야 분류체계,⁵⁾ 이흥윤의 레저산업 분류체계,⁶⁾ 김계섭의 관광자원 분류체계⁷⁾ 등이 연구되어 있으며, 손해식과 여호근은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연구분야 분류법에서 관광분야 분류체계를 바탕으로 1960년부터 1999년간의 국내 관광문헌을 시대별, 영역별 등으로 분석하였다.⁸⁾ 이들의 연구는 대부분 관광과 관련된 특정 분야에 한정하여 분류체계 수정이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관광분야 전체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한편 이월계는 관광학의 연구동향을 주제별, 연도별, 학위별, 대학별, 학과별로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관광학의 연구영역을 분석하는데 의의가 있다.⁹⁾

지금까지 관광학 관련 각종 분류체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 연구에서와 같이 관광학의 학문적 특성과 연구영역을 바탕으로 관광학 분야 분류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KDC 수정 전개 방안을 제시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외에도 주제 분야는 다르지만 최근의 KDC 분야별 개정과 관련하여 김수정,¹⁰⁾ 이희진과 김정

1) 이지연, 김정현, “관광분야의 새로운 분류체계 설계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연구, 제43권, 제3호(2012), pp.79-95.
 2) 조은정, 인터넷 관광정보 분류체계 연구 : 국내 주요 관광정보사이트를 대상으로(박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대학원, 호텔관광경영학과, 2010).
 3) 김사헌, “관광학의 분류체계에 관한 고찰,” 관광개발연구, 제2권(1984), pp.5-14.
 4) 권문호, “관광의 분류 체계와 학문적 접근방법에 관한 연구: 관광경영학 관점을 중심으로,” 관광·레저연구, 제25권, 제4호 (2013), pp.275-288.
 5) 정유경 외, “호텔외식경영분야의 학문적 분류체계에 대한 연구,” 관광학연구, 제33권 제5권(2009), pp.479-489.
 6) 이흥윤, “레저산업의 분류체계에 관한 연구,” 관광경영학연구, 제3권(1998), pp.53-71.
 7) 김계섭, “觀光資源의 分類體系에 關한 研究,”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제1권, 제5호(1988), pp.103-119.
 8) 손해식, 여호근, “관광문헌 분류에 관한 연구 : 한국학술진흥재단 관광학 분류기준을 중심으로,” 아·태관광연구, 제4권(1999), pp.7-24.
 9) 이월계, 한국 관광학 연구의 동향 : 관광관련학과 학위논문을 중심으로(석사학위논문, 강원대학교 경영대학원 관광경영학과, 2010).
 10) 김수정, “KDC 제6판 디자인학 분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24권, 제3호(2013),

현,¹¹⁾ 이창수,¹²⁾ 여지숙,¹³⁾ 박재혁과 김비연,¹⁴⁾ 김정현,¹⁵⁾ 김자후,¹⁶⁾ 한경신¹⁷⁾ 등의 연구가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광학의 학문적 특성과 분류체계, 국가서지가운데 관광학의 유별 자료현황 및 주제어 분석을 토대로 KDC 관광학의 분류체계를 분석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II. 관광학의 학문적 특성 및 분류체계

1. 관광학의 학문적 특성

현대의 관광은 매우 복잡한 사회문화 현상이며, 아울러 인간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관광현상의 구조체계를 이해하기 위해 초기단계에서는 단순히 관광학을 관광의 행위주체인 관광객과 관광의 대상이 되는 관광자원 즉, 관광객체 간의 상호작용으로 이해하는 2단계로 보았다. 이후 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관광현상 역시 더욱 복잡해지면서 관광주체와 관광객체를 연결해주는 여행업체나 교통수단과 같은 관광기업의 역할이 증대되었으며, 결국 관광매체의 등장이 이루어지면서 관광주체-관광매체-관광객체로 연결된 베르네커(P. Bernecker)의 3체계론이 관광구조의 기본체계로 자리 잡게 되었다.¹⁸⁾

김성혁은 관광구조에 대해 베르네커의 3체계론을 토대로 관광주체 및 객체를 구분하여 관광학을 체계화하려는 노력으로 관광경영의 입장에서 관광매체를 분리하여 삼각도를 체계화하였으며,¹⁹⁾ 박상수도 관광은 관광주체, 관광객체, 관광매체의 3가지 요소가 결합되어 상용 작용을 한다고 주장하였다,²⁰⁾ 또한 김종은은 관광구조를 관광을 구성하는 관광조직으로 보고 관광의 3대 요

pp.53-72.

11) 이희진, 김정현, “한국십진분류법 제6판 체육학 분야의 분류체계 개선방안,”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24권, 제4호(2013), pp.301-317.

12) 이창수, “KDC 역사보조학 분야 분류체계의 개선방안,”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4권 제3호(2013), pp.29-49.

13) 여지숙, 공성훈, 오동근, “KDC 제5판 건축학 분야 전개의 개선방안,”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7권, 제2호(2013), pp.359-376.

14) 박재혁, 김비연, “통계학의 학문적 특성에 따른 KDC 문헌분류의 개선방안,”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4권, 제2호(2013), pp.399-422.

15) 김정현, “한국십진분류법 제5판 의류학 분야의 수정 전개 방안,”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3권, 제3호(2012), pp.101-120.

16) 김자후, “KDC 5판 기초법학 부문 개선방안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3권 제4호(2012), pp.5-22.

17) 한경신, “한국십진분류법 한국음악 분류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3권, 제4호(2012), pp.297-316.

18) 유준상, 안대희, 김용순, 관광의 이해(서울 : 대왕사, 2005), p.129.

19) 김성혁, 관광학원론, 개정판(서울 : 형설출판사, 2009), pp.34-35.

20) 박상수, 관광학원론(서울 : 형설출판사, 2004), pp.23-26.

소인 관광주체, 관광객체, 관광매체의 구성요소와 관광관리자로 간주하여 네 가지의 요소가 서로 독립적이면서도 상호작용적 특성을 지니고 있는 점을 바탕으로 관광을 설명하였다.²¹⁾ 이정학은 관광을 주체, 객체, 매체, 환경 부분으로 나누어 주체는 관광자의 행동, 객체는 관광과 문화, 관광과 환경, 관광자원과 개발, 매체는 관광교통, 관광숙박과 외식산업, 여행업, 카지노, 테마파크와 리조트, 환경에서는 관광의 경제적·사회적 영향, 관광정책 등으로 나누었다.²²⁾ 김정만은 관광학의 연구영역을 크게 관광을 하는 주체인 관광자에 대한 연구, 관광자가 필요로 하는 제품이나 용어 등을 제공하는 사업체에 대한 연구, 관광대상자의 행정당국이나 정부에 대한 연구, 관광지역이나 지역주민에 대한 연구의 4가지로 구분하였다.²³⁾

이와 같이 각 학자들의 주장을 종합하면, 관광학을 대부분 관광주체, 관광객체, 관광매체의 관점으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다. 즉, 관광학은 관광주체, 관광객체, 관광매체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구성요소 간에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 상호작용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관광학의 분류체계 비교 분석

가. 관광학의 연구분류 체계

국내의 대표적인 연구분류체계에는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연구분야 분류표」와 교육과학기술부의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가 있다.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연구분야 분류표」에서는 <표 1>에서와 같이 관광학을 사회과학의 하위항목(B180000)으로 분류한 후, 관광학일반, 관광경영/경제, 관광마케팅/상품, 관광자원, 관광개발,

<표 1> 주요 연구분류 체계의 관광학 분류체계

학술연구분야 분류표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B180000 사회과학>관광학 B180100 관광학일반 (관광정책, 관광비교, 관광정보, 관광역사, 관광법규, 관광행정) B180200 관광경영/경제 (여행사/항공사경영, 호텔/외식산업경영) B180300~B189900 관광마케팅/상품, 관광자원, 관광개발, 관광지계획설계, 관광사업/대저사업, 국제관광, 관광행동/심리, 관광통역, 관광문화, 컨벤션/이벤트산업, 기타	SF 지리/지역/관광 SF07 관광 SF0701~SF0799 관광정책, 호텔/외식경영, 항공사/여행사경영, 관광행동/관광마케팅/서비스, 관광자원/리조트/테마파크/상품개발, 관광콘텐츠/정보, 관광문화/교육, 컨벤션/카지노/크루즈, 문화관광/축제/이벤트, 녹색/환경/생태관광, 기타
B160211 사회과학>지리학>인문지리학>관광지리 FO31000 농수해양>조경학>관광지조경 (국토 및 광역조경, 실내조경)	SF0310 인문지리>관광지리 SB1204 정치/행정>분야별/유형별 행정/정책>문화관광

21) 김종은, 관광학원론, 개정판(서울 : 현학사, 2004), pp.43-50.

22) 이정학, 관광학원론(서울 : 대왕사, 2010), pp.27-28.

23) 김정만, 관광학개론, 개정증보판(서울 : 형설출판사, 2010), pp.45-46.

6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5권 제1호)

관광지계획설계, 관광사업/레저사업, 국제관광, 관광행동/심리, 관광통역, 관광문화, 컨벤션/이벤트산업, 기타 관광학으로 세분하고 있다. 이외에도 ‘관광’이라는 키워드가 포함된 항목으로 인문지리학의 관광지리(B160211)와 조경학의 관광지조경(F031000)이 있다.²⁴⁾ 교육과학기술부의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에서는 관광을 ‘지리/지역/관광’의 하위항목(SF07)으로 분류한 후, 관광정책, 호텔/외식경영, 항공사/여행사경영, 관광행동/관광마케팅/서비스, 관광자원/리조트/테마파크/상품개발, 관광콘텐츠/정보, 관광문화/교육, 컨벤션/카지노/크루즈, 문화관광/축제/이벤트, 녹색/환경/생태관광으로 세분하고 있다. 이외에도 ‘관광’이라는 키워드가 포함된 항목으로 인문지리의 관광지리(SF0310)와 정치/행정의 문화관광(SB1204)이 있다.²⁵⁾

그런데 <표 1>의 「학술연구분야 분류표」나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앞절에서 분석한 관광학의 학문영역가운데 관광객체나 관광매체 등에 해당하는 많은 항목들이 분산되어 있으며, 직접적으로 관광위주의 항목으로 전개되어 있지 않다.

나. 관광학의 문헌분류 체계

KDC 제6판,²⁶⁾ NDC 신정9판,²⁷⁾ DDC 제23판,²⁸⁾ UDC 표준판,²⁹⁾ LCC: G(2005)³⁰⁾에서 ‘관광’이라는 항목을 직접 다루고 있는 분류항목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표 2> 주요 문헌분류법의 관광학 분류체계

KDC	NDC	DDC
320 경제학	600 산업	300 사회과학
326 상업·교통·통신	680 운송교통	306 문화 및 제도
326.3 교통	689 관광사업	306.4819 여행 및 관광
326.39 관광학	689.1 관광정책·행정·법령	330 경제학
326.391 관광정책	689.2 관광사업사·사정	333.78 관광자원
326.392 관광경영	689.3 관광사업경영·선진	338 산업경제·생산경제
326.393 관광상품	689.4 관광지계획·관광개발	338.4791 관광산업
	689.5~689.9 관광시설 유원지사업, 여행안내업, 호텔, 휴양시설 등	

24) 한국연구재단, 학술연구분야분류표, 2013. <<http://www.nrf.re.kr/>> [인용 2014. 1. 10].

25) 교육과학기술부,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2012. <<http://www.nrf.re.kr/>> [인용 2014. 1. 10].

26) 한국도서관협회, 한국십진분류법, 제6판, 제1권: 본표(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2013), p.246.

27) 日本圖書館協會, 日本十進分類法, 新訂9版(東京 : 日本圖書館協會, 2005), p.344.

28) Melvil Dewey,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and Relative Index*, 23th ed.(Dublin, Ohio : OCLC Online Computer Library Center, 2011).

29) British Standard Institution, *Universal Decimal Classification*, Standard ed.(London : British Standard Institution, 2005), pp.263-264.

30) Library of Congress Classification System, *Super LCCS: Gale's Library of Congress Classification Schedules Combined with Additions and Changes, Class G, Class H, Class N, Class S, Class T*, 2005 ed.(Detroit : Gale Research, 2005).

UDC	LCC
33 경제. 경제학 338.48 관광 338.48-1/-6 관광의 특징 ; 패키지, 본인구성관광, 고객유형, 시기, 목적지, 활동, 목적 등에 따른 관광 338.481~338.488 관광 및 관광객. 여행의 배경 및 기원, 관광자원, 관광 지리학, 관광환경,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환경의 관광영향, 관광경제 및 관리, 관광시장, 관광과 관련된 서비스	G 지리, 인류학, 휴양 G154.7 여행가이드, 여행 및 상태, 관광업 (관광여행촉진, 통계조사 포함) G154.9-155.8 여행 및 상태, 관광 TD 환경기술, 위생공학 TD195.T68 관광업

앞서 관광학의 연구영역을 바탕으로 주요 분류법의 관광학 분류체계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다.

첫째, 관광학은 분류법에 따라 다양한 주제에 상이하게 배치되어 있다. 즉, KDC는 경제학(320)의 하위세목으로 관광학(326.39)을 배치하고 있다. NDC는 운송·교통(680)의 하위항목으로 689(관광사업)를 배치하고 있으며, 다른 분류법과는 달리 관광시설을 여기에 함께 분류하고 있다. DDC는 문화 및 제도(306)의 하위세목으로 여행 및 관광(306.4819), 경제학(330)의 하위세목으로 관광자원(333.78)과 관광산업(338.4791)을 전개하고 있다. UDC는 경제 분야에 따른 생산 및 서비스(338.4)의 하위세목으로 관광(338.48)을 배치하고 있으며, 다른 분류법과는 달리 관광주체인 관광객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다른 분류체계보다는 비교적 다양한 세부 항목을 전개하고 있지만, 관광매체와 관광객체는 대부분 해당 주제에서 배치되어 있다. LCC는 지리(G1-922)의 하위세목인 여행가이드·여행 및 상태·관광업(G154.7)과 여행 및 상태·관광(G154.9-155.8), 환경기술·위생공학(TD)의 하위세목인 관광업(TD195.T68)으로 전개하고 있다.

둘째, <표 2>에서와 같이 대부분의 분류법이 '관광'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분류항목이 '교통'이나 '산업경제'의 하위세목으로만 다루고 있어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실제로 관광학의 학문 영역에서 관광영역으로 다루고 있는 관광객체나 관광매체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항목은 해당 주제에서 다루고 있다. 이와 같이 관광학의 항목들은 관광을 직접 다루기보다 해당 주제 중심으로 다루고 있어 관광학 측면에서 다루고 있는 자료라 할지라도 한곳에 집중시키기가 어렵다.

Ⅲ. KDC 관광학의 분류체계 특성 및 수정 전개 방안

1. KDC 관광학의 분류체계 특성

가. KDC 관광학의 분류체계 분석

〈표 3〉 KDC 관광학의 분류체계

KDC 분류항목	구분	
320 경제학>326 상업·교통·통신>326.3 교통 326.39 관광학(컨벤션산업 포함, 표준구분에 따라 세분) 326.391 관광정책 326.392 관광경영(관광사업, 관광마케팅, 서비스관리 등을 포함)	관광 일반	직 접 전 개
326.393 관광상품(국제관광, 생태관광 자원, 문화관광자원, 문화이벤트 등을 포함)	관광 객체	
320 경제학>326.3 교통 326.33~326.37 육로운송, 철도운송, 수로운송, 해로운송, 항공운송	관광 매체	
380 풍습, 예절, 민속학>386 축제, 세시풍속 386.1 축제	관광 객체	
520 농업, 농학>525.9 조경 525.92~52.95 정원, 공원, 수목원, 휴양림, 국공립공원	관광 객체	간 접 전 개
540 건축, 건축학>549 각종건물 건축 549.77 별장, 방갈로, 호텔 549.86 오락 및 레저시설	관광 매체	
590 생활과학 596.8 단기거주용 공동주택관리(호텔, 여관, 민박, 펜션, 캠프장, 콘도, 리조트 등 관리)	관광 매체	
980 지리 980.2 명승안내, 여행 981~987 각지의 명승안내	관광 객체	

KDC는 관광학을 경제학>교통의 하위세목에서 매우 제한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관광학의 학문 영역인 관광주체, 관광객체, 관광매체, 관광일반의 측면에서 구분하여 나타내면 〈표 3〉과 같다. 〈표 3〉에서 분류항목에 ‘관광’이라는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와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학문영역에서 관광학에 해당하는 두 가지의 경우로 나누어 직접 전개와 간접 전개로 구분하였다.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KDC는 관광학(326.39)을 관광정책, 관광경영, 관광상품 등과 같이 관광일반과 관광객체에 해당하는 일부 항목만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다. 관광주체에 대한 세목은 없으며, 관광객체에 해당하는 자연자원이나 생활, 민속, 행사, 축제, 사적, 문화재, 정원, 향토 음식 등의 인문자원, 관광매체에 해당하는 항공, 해상 등의 교통운송업, 숙박시설, 식음료시설, 위

락시설 등은 모두 관광측면이 아니라 해당 주제 측면에서 다양하게 세분하고 있다.

나. KDC 관광학의 유별 특성 분석

(1) KDC 관광학의 유별 분포

학문발전의 추세에 부응하여 새로운 주제를 추가하거나 수정 전개하지 않으면 특정 분류항목에 자료가 집중될 수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의 「대한민국 국가서지 2012」³¹⁾를 조사하여 이러한 현황을 분석하였다. 「대한민국 국가서지 2012」에는 해방이후 2012년까지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된 국내 출판도서를 비롯하여 학위논문과 비도서자료 등 344만 여건이 DVD에 수록되어 있다. 이 가운데 관광학 자료는 총 9,423건이며, 분류기호를 검색하여 유별 분포를 분석한 내용은 <표 4>과 같다. 물론 관광학 자료는 앞서 관광학의 학문영역 관점에서 관광주체, 관광객체, 관광매체에 해당하는 모든 항목을 포함하면 훨씬 늘어나겠지만, 여기서는 편의상 관광이라는 항목이 명확하게 언급되어 있는 326.39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표 4> 관광학 유별 자료현황: 「대한민국 국가서지 2012」(단위: 건)

KDC 분류항목	자료구분	자료 수(%)	
326.39 관광학 일반	일반도서	780	8,015(85.1)
	학위논문	628	
326.3901-.3909 관광학 표준구분	일반도서	517	532(5.6)
	학위논문	15	
326.391 관광정책	일반도서	73	82(0.9)
	학위논문	9	
326.392 관광경영	일반도서	77	568(6.0)
	학위논문	491	
326.393 관광상품	일반도서	113	226(2.4)
	학위논문	113	
326.39-.393 관광학 전체	일반도서	3,820	9,423(100)
	학위논문	5,603	

<표 4>에서 관광학 전체(326.39-.393) 9,423건 중 관광학 일반(326.39)에 8,015건(85.1%)으로 대부분의 자료가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관광학 자료가 세분되지 않고 326.39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것은 KDC 제5판이 발간된 2009년부터 326.39가 326.391-.393으로 세분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2009년 이후에 적용된 관광경영(326.392)에 568건, 관광상품에 226건과 같이 단기 간임에도 불구하고 단일 분류기호에 자료가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어 이들 항목에도 하위 세목을

31) 국립중앙도서관, 대한민국 국가서지 2012(서울 : 국립중앙도서관, 2013).

전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관광학의 실제적인 유별분포를 알려면 이들 자료를 하나하나 주제분석을 하지 않고는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다.

(2) KDC 관광학의 분류항목 주제어 분석

앞서 유별 자료현황에 나타난 바와 같이 관광학의 경우 관광학 일반(326.39)에 대부분의 자료가 집중되어 있다. 그런데 이들 자료를 일부 조사해보면 관광학 일반으로 분류하기에는 특징적인 주제의 자료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들 항목의 주제어 분석을 함으로써 실제 이들 자료가 대부분 유사한 관광학 일반의 자료인지, 보다 특징적인 주제들로 군집화 될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분류항목의 세분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표 5〉는 「대한민국 국가서지 2012」에서 관광학(326.39-393)에 해당하는 각 자료의 해당 레코드에서 주제어를 추출하여 유사한 주제끼리 군집한 후, 필자가 KDC 제6권의 분류기호를 다시 부여한 것이다. 주제어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부여한 주제어가 있는 경우에 그대로 사용하였고, 두 가지 이상의 주제어를 가질 경우 좀 더 중점적인 한 가지 주제어만을 선정하여 같은 자료가 중복되지 않도록 하였다. 주제어가 없는 경우 자료의 표제나 목차를 참고하여 직접 추출하였다.

〈표 5〉에서 관광유형은 1,876건(27.7%)으로 관광학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문화관광(216건), 국제관광(154건), 생태관광(130건), 의료관광(128건), 관광이벤트(108건), 농촌관광(93건), 스포츠관광(83건) 등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관광경제·경영은 1,082건(16.0%)으로 관광학에서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여행업경영(228건), 관광마케팅(154건), 관광수요 및 관광유치(141건), 관광사업(134건), 관광서비스(53건) 등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또한 관광행동·관광심리(492건), 관광언어(122건), 관광정보(130건), 컨벤션(295건) 등은 세목으로 구분되지 않고, 모두 관광(326.39)에 함께 분류된다.

〈표 5〉의 관광학 관련 분야로 언급되는 호텔경영, 외식업체·외식산업·레스토랑, 리조트, 카지노·사행산업·도박, 레저, 레저시설, 테마파크·주제공원, 숙박시설(숙박, 콘도미니엄, 펜션 등), 국제회의·전시산업, 항공사서비스·공항서비스, 축제·지역축제 등은 현행 KDC 본표에서는 관광(326.39)이 아니라 해당 주제로 분류항목이 각기 분산 배치되어 있으며, 실제로 많은 자료들이 각 해당 주제에 분류되어 있다. 그런데 〈표 5〉에서와 같이 상당 부분의 자료가 관광(326.39)에도 분류되어 있어 같은 주제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자료들이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표 5> 326.39-.393(관광학)의 주제어 분석: 9,423건

구분	주제어 및 자료수	합계 (%)	KDC 분류기호
관광학 분야	관광학(관광일반 784, 관광교류협력 37, 관광과 사회환경·광고 28)	849 (12.5)	326.39
	관광학 표준구분 (관광이론 12, 법령 239, 통계 15, 사전 13, 학술지 12, 단체회의 27, 교육연구방법 19)	337 (5.0)	329.3901 ~.3909
	관광학 표준구분(지역별 관광 227)	227 (3.3)	326.3909
	관광개발 일반 209, 지역별 관광개발 243, 관광지 특성 75	527 (7.8)	326.39
	관광행동심리 일반 53, 관광객행동 146, 관광동기 51, 관광이미지 44, 외국인 관광객 71, 관광만족도 45, 관광선택 67, 관광불편 15	492 (7.3)	326.39
	관광경제 일반 95, 관광경영 일반 185, 관광서비스 105, 관광마케팅 194, 관광수요 70, 관광유치 71, 관광사업 134, 여행업·여행사 228	1,082 (16.0)	326.392
	관광정책 일반 122, 관광행정 일반 35	157 (2.3)	326.391
	관광한국어 15, 관광영어 96, 관광일어 58, 관광중국어 11, 기타 관광외국어 8	188 (2.8)	326.39
	관광이벤트 168, 국제(해외)관광 174, 의료관광 148, 생태관광 170, 문화관광 285, 농촌관광(체험) 103, 녹색관광 97, 어촌관광 43, 스포츠관광 123, 해양관광 57, 크루즈관광 44, 도시관광 39, 소평관광 42, 레저관광 50, 수학여행·교육기행 35, 음식관광·음식기행 25, 신혼여행 18, 노인관광 29, 성지순례관광 15, 기타 관광 211	1,876 (27.7)	326.393
	관광자원(관광자원 일반 192, 문화유산 36, 지역별 관광자원 31), 관광상품론(관광상품 일반 90, 관광상품개발 35, 관광상품구매 20), 관광산업(관광산업 일반 132, 관광산업개발 25, 지역별 관광산업 56)	617 (9.1)	326.393
	관광정보 일반 34, 관광시스템 49, 인터넷 관광정보 47	130 (1.9)	326.39
	컨벤션(컨벤션 일반 33, 기획 59, 산업 68, 마케팅 55, 서비스 64, 컨벤션센터 16)	295 (4.3)	326.39
	합계	6,777 (100)	
	관광학 관련 분야	호텔 292, 관광호텔 123	415 (15.7)
외식업체 53, 외식산업 36, 레스토랑 15		104 (3.9)	594.82
리조트 일반 82, 스키리조트 15, 해양리조트 39		136 (5.1)	596.89
카지노 172, 사행산업(도박) 8		180 (6.8)	691 326.39
레저 일반 84, 레저시설 50		134 (5.1)	335.5 596.89
테마파크(주제공원) 309		309 (11.7)	525.93
숙박 25, 콘도미니엄 23, 펜션 14, 기타 숙박시설 9		71 (2.7)	596.82 ~.89
국제회의 90, 국제전시 25, 전시 53		168 (6.3)	060 325.745 326.39
관광학 관련 분야	항공사서비스 125, 공항서비스 15	140 (5.3)	326.37
	축제 50, 지역축제 149	226 (8.5)	386.1
	기타 763	763 (28.8)	
	합계	2,646 (100)	

다. KDC 관광학의 문제점 분석

앞절에서 분석한 관광학의 학문적 특성과 분류체계를 바탕으로 KDC의 문제점을 분석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관광학의 일반적인 학문영역은 관광주체, 관광객체, 관광매체 등과 같이 매우 포괄적으로 정의 하고 있지만, <표 3>에서와 같이 KDC는 관광학(326.39)을 관광정책, 관광경영, 관광상품 등과 같이 관광일반과 관광객체에 해당하는 일부 항목만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다. 관광주체에 대한 세목은 없으며, 관광객체나 관광매체에 해당하는 다양한 항목들은 관광학이 아니라, 해당 주제별로 분산되어 있다. 이는 KDC나 DDC의 분류체계가 인간의 모든 지식을 일차적으로 학문영역이나 연구분야로 범주화하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관광’, ‘호텔’, ‘축제’처럼 단일명사인 경우, 분류표의 분류명사와 일치하는 곳이 있으면 명확하게 분류를 할 수 있지만, ‘관광축제’나 ‘관광호텔’처럼 ‘관광’과 결합된 복합어 즉, 복합주제인 경우에는 대부분이 명확하지가 않다. 실제로 <표 6>에서와 같이 이들 키워드가 포함된 자료를 「대한민국 국가서지 2012」에서 검색해보면 분류기호가 일관성이 없이 혼란스럽게 부여되어 있다. 또한 KDC가 DDC와 같이 관점분류를 지향하고 상관색인을 활용하고 있지만, 상관색인에는 이러한 항목이 나타나 있지 않다.

<표 6> 관광학 분야의 KDC 분류사례 분석

키워드	자료예시	KDC 분류기호
관광축제	문화관광축제 육성방안 / 김철원, 이석호 서산 4계절 문화관광축제 기획안 / 서산문화원 문화관광축제 평가체계 연구 / 오운성	326.39
	관광축제이벤트의 기획과 전략 / 문성중 지음 부산자갈치 문화관광축제 평가분석 / 조명환	386.1
관광호텔	관광호텔 등급제도 개선방안 / 한국관광연구원 관광호텔 지배인 자격시험/ 이선희...[등] 저	326.39
	관광호텔 서비스론 / 최복수, 한상겸, 신철호 공저 관광호텔의 이해 / 조남재 저	596.81
관광숙박	관광숙박 수급분석 및 대응방향 / 전효재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 연구 / 류광훈	326.39
	관광숙박업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 교통개발연구원 편 관광숙박시설의 실태와 공급방안에 관한 연구 / 박영출	596.81

셋째, <표 5>의 주제어분석에 나타난 바와 같이 관광행동·관광심리, 관광언어, 관광정보, 컨벤션 등은 세목이 없어 모두 단일 분류기호인 관광(326.39)에 자료가 집중되므로 세목의 신설이 필요하며, 관광경영(326.392)이나 관광상품(326.393) 등도 자료가 집중되어 있어 하위세목의 전개가 필요하다.

넷째,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관광학 관련 분야는 대부분 해당 주제에 분류하고 있지만 2,646건(28%)이 326.39 아래에 분류되어 있었다. 이는 학위논문의 경우, 전공학위나 학과를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는 현실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이들 자료는 전공학위나 학과명에 따라 일률적으로 관광(326.39) 아래에 분류할 것이 아니라, 자료내용을 기준으로 해당 주제에 분류해야 할 것이다. 이들 일부 자료가운데 관광과 결합되어 복합주제로 되어 있거나 관광과의 관련성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혼란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2. KDC 관광학의 분류체계 수정 전개 방안

가. 관광학의 세목 전개

(1) 관광학 세목 전개의 원칙

앞서 분석한 관광학의 학문적 특성 및 분류체계, 유별 자료현황 및 주제어 분석을 바탕으로 수정 전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능한 기존의 KDC 분류항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항목이 미비하거나 지나치게 집중된 곳은 항목을 새로 전개하고, 관광 관련 복합주제와 같이 분류가 명확하지 않은 곳은 용어를 수정하거나 주기를 첨가하여 명확하게 하였다. 또한 KDC가 주제분류보다는 관점분류를 지향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존의 분류체계를 그대로 유지하였으며, 이는 상관색인을 통해 보완하고자 한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대부분의 관광객체와 관광매체 등에 해당하는 항목은 이미 각 주제별로 분류되어 있어 기존의 분류체계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리고 관광주체 즉, 관광객에 대한 분류항목이 없으므로 세목을 신설하였다. 이미 세목으로 되어 있는 관광정책(326.391), 관광경영(326.392), 관광상품(326.393)의 분류항목은 그대로 유지하였으며, 필요에 따라 분류명사를 수정하거나 주제어 분석 등을 근거로 하위세목을 전개하였다. 또한 유별 자료현황 및 주제어 분석에서 기존의 세목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상대적으로 자료의 빈도수가 높은 관광산업, 관광정보, 관광언어, 컨벤션 등의 세목을 신설하였다.

(2) 관광학 세목 전개의 내용

앞절에서 분석한 KDC 관광학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관광학의 세목을 전개하면 <표 7>과 같다. 기존의 326.391은 관광정책을 관광정책 및 관광행정으로 수정하였으며, 관광정책에는 관광교류도 포함하였다. 326.392는 관광경영을 관광경제 및 관광경영으로 수정하고, 주제어 분석을 바탕으로 세목을 전개하였으며, 결과적으로 분류주기의 내용이 모두 세목으로 확장되었다. 326.393은 관광상품을 ‘관광유형, 관광자원’으로 수정하였으며, 주제어 분석을 바탕으로 세목을 전개하였다. 별법으로 “도서관에 따라 001-999와 같이 주제구분할 수 있다”라는 주기가 있지만 국제관광, 녹

〈표 7〉 326.39(관광학)의 수정 전개 방안

KDC 제6판	KDC 제6판 수정 전개안
326.39 관광학 컨벤션 산업을 포함한다. 326.3901-.3909는 표준구분에 따라 세분한다. 명승안내 → 980.2; 각지의 명승안내 981-987; 호텔경영 → 596.81	326.39 관광학 326.3901-.3909는 표준구분에 따라 세분한다. 명승안내 → 980.2; 각지의 명승안내 981-987; 호텔경영 → 596.81
326.391 관광정책	326.391 관광정책, 관광행정 .3911 관광정책 관광교류·협력 포함 .3912 관광행정
326.392 관광경영 관광사업, 관광마케팅, 서비스관리 등을 포함한다.	326.392 관광경제 , 관광경영 .3921 관광경제 .3922 관광사업, 여행사업 .3923 관광마케팅 .3924 관광수요, 관광유치 .3925 관광서비스관리
326.393 관광상품 국제관광, 생태관광자원, 문화관광자원, 관광이벤트 등을 포함한다. 별법: 도서관에 따라 001-999와 같이 주제구분할 수 있다. 예: 스포츠관광 326.393692; 의료관광 326.39351	326.393 관광유형 , 관광자원 .3931 국제관광 .3932 생태관광 .3933 문화관광 음식기행, 성지순례여행 포함 .3934 의료관광 .3935 스포츠·해양관광 레저관광 포함 .3936 녹색관광 .3937 농촌·어촌·산촌도시관광 .3938 관광이벤트 관광쇼핑, 신희여행 포함 .3939 기타 관광유형, 관광자원
	326.394 관광심리 , 관광객 .3941 관광동기 .3942 관광객 행동 .3943 관광이미지, 관광만족도 .3949 국가별 관광객, 외국인 관광객 326.395 관광산업 326.396 관광정보 .3961 관광정보시스템 326.397 관광언어 .3971 한국어 .3972 중국어 .3973 일본어 .3974 영어 (또는 710-799에서 7다음의 기호첨가) 326.398 컨벤션 .3981 컨벤션 기획 .3982 컨벤션 서비스 .3983 컨벤션 마케팅 .3984 컨벤션 산업 326.399 지역별 관광 및 관광개발 지역구분표에 따라 세분한다. 예: 강원도 관광개발 326.99114; 유럽관광 326.3992

색관광, 관광이벤트 등은 이러한 적용을 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주제어 분석에서 유사한 주제어를 군집화 한 다음, 빈도가 높은 항목을 중심으로 세목을 전개하고 나머지는 기타 항목으로 처리하였다. 결과적으로 분류주기의 국제관광, 생태관광자원, 문화관광자원, 관광이벤트 등은 모두 세목으로 확장되었으며, 이외에도 상대적으로 빈도수가 높은 의료관광, 스포츠·해양관광, 녹색관광, 농촌·어촌·산촌·도시관광 등이 세목으로 신설되었다.

또한 326.394~.399를 신설하였으며, 이들 항목은 주로 <표 5>의 주제어 분석을 바탕으로 전개하였다. 326.394에는 관광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관광심리 및 관광객, 326.395 관광산업, 326.396 관광정보, 326.397 관광언어, 326.398 컨벤션, 326.399 지역별 관광 및 관광개발을 배치하였으며, 항목에 따라 다시 하위세목을 전개하였다.

나. ‘관광’ 관련 복합주제

<표 6>에서와 같이 ‘관광’과 결합된 복합주제 즉, ‘관광축제’, ‘관광호텔’, ‘관광숙박’ 등은 분류자에 따라 해당 주제와 관광(326.39) 사이에 분류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항목들은 관광(326.39)에 분류하기 위해서는 모두 새로운 세목의 전개가 필요하며, 해당 주제의 입장에서는 관련 자료가 분산되는 단점이 있다. 이와 같이 복합주제는 양면성이 있지만 ‘일반 호텔의 서비스론’과 ‘관광호텔의 서비스론’, ‘지역축제의 이해’와 ‘지역관광축제의 이해’ 등은 ‘관광’이라는 주제보다는 ‘호텔’이나 ‘축제’라는 주제를 우선하여 해당 주제에 분류하기로 한다. 이를 보다 명확하게 위해 <표 8>에서와 같이 해당 주제아래에 주기를 첨가하였다.

<표 8> 386.1(축제)과 596.8(단기거주용 공동주택관리)의 수정 전개 방안

KDC 제6판	KDC 제6판 수정 전개안
386 축제, 세시풍속 .1 축제	386 축제, 세시풍속 .1 축제 관광축제를 포함한다.
596.8 단기거주용 공동주택관리 .81 호텔 .82 여관, 모텔 .83 하숙, 민박 ~ .89 여가용 주택관리 콘도미니엄, 리조트, 펜션, 별장 등을 포함한다.	596.8 단기거주용 공동주택관리 관광호텔과 같이 ‘관광’과 결합된 아래의 시설관리도 포함한다. .81 호텔 .82 여관, 모텔 .83 하숙, 민박 ~ .89 여가용 주택관리 콘도미니엄, 리조트, 펜션, 별장 등을 포함한다.

다. 세목 전개부분의 색인어 추가

관광학이라는 독자적인 학문영역을 강조하여 분류항목을 전개할 경우, 관광학의 학문영역에서 구분한 관광주체, 관광객체, 관광매체, 관광일반을 모두 관광학에서 세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KDC에서는 관점이나 다루어지는 측면에 따라 이미 관광객체나 관광매체 등은 대부분 해당 주제에 분류되어 있어 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상관색인은 어떤 주제에 관한 다양한 관점들 즉, 분산된 관련 항목들을 자모순으로 한곳에 모아 줌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³²⁾

〈표 9〉는 KDC 제6판의 관광학 관련 상관색인과 수정 전개 방안을 나타낸 것이다. 상관색인 수정 전개안은 KDC 제6판 상관색인 범례³³⁾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색인어는 〈표 7〉과 〈표 8〉의 KDC 제6판 분류체계 수정 전개 방안에서 추출하였다. 35개의 색인어를 추가하였으며, 특히 ‘관광 리조트’, ‘관광숙박시설’, ‘관광축제’, ‘관광호텔관리’ 등의 색인어를 추가함으로써 ‘관광’과 결합되어 빈도수가 높은 일부 복합주제의 분류혼란을 피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9〉 관광학 관련 상관색인 수정 전개 방안

KDC 제6판 상관색인		KDC 제6판 상관색인 수정 전개안			
관광		관광	326.39	관광객	326.394
개발	326.392	개발	326.399	행동	326.3942
경영	326.392	경영	326.392	관광학	326.392
도로	534.98	경제	326.3921	국가별 관광	326.3949
마케팅	326.392	도로	534.98	국제관광	326.3931
사업	326.392	동기	326.3941	녹색관광	326.3936
상품	326.393	리조트	596.89	농촌관광	326.3937
서비스관리	326.392	마케팅	326.3923	리조트	596.89
이벤트	326.393	만족도	326.3943	문화관광	326.3933
자원	326.393	사업	326.3922	신촌관광	326.3937
정책	326.391	산업	326.395	생태관광	326.3932
지역행정	359.074	서비스관리	326.3925	숙박시설	596.8
관광학	326.39	수요	326.3924	스포츠관광	326.3935
국제관광	326.393	숙박시설	596.8	어촌관광	326.3937
리조트	596.89	심리	326.394	여행사업	326.3922
문화관광자원	326.393	언어	326.397	외국인 관광객	326.3949
생태관광자원	326.393	유치	326.3924	의료관광	326.3934
숙박시설	596.8	유형	326.393	지역별 관광	326.399
축제	386.1	이미지	326.3943	축제	386.1
컨벤션산업	326.39	이벤트	326.3928	컨벤션	326.398
호텔	549.77	자원	326.393	기획	326.3981
관리	596.81	정보	326.396	마케팅	326.3983
요리	594.572	시스템	326.3961	산업	326.3984
		정책	326.3911	서비스	326.3982
		지역행정	359.074	호텔	549.77
		축제	386.1	관리	596.81
		행정	326.3912	요리	594.572
		호텔관리	596.81		

32) 오동근, DDC 22의 이해(대구 : 태일사, 2007), p.35.

33) 한국도서관협회, 한국십진분류법, 제6판, 제2권: 상관색인(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2013), p.3.

V. 결론

이 연구는 관광학의 학문적 특성과 분류체계, 국립중앙도서관의 관광학 유별 자료현황 및 주제어 분석을 통해 KDC 관광학의 분류체계 수정 전개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관광학의 학술문헌을 통해 관광학의 학문적 특성 및 연구영역과 주요 문헌분류법의 관광학 분류체계를 비교 분석한 결과, 관광학의 학문영역은 대개 관광주체, 관광객체, 관광매체, 관광일반으로 구분되고 있다. 그런데 문헌분류법에서는 관광객체나 관광매체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항목을 해당 주제별로 분산하여 다루고 있으며, 관광학에서는 관광일반과 관광객체에 해당하는 일부 항목만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다.

둘째, 국립중앙도서관의 「대한민국 국가서지 2012」에서 관광학 자료의 경우 세목이 거의 설정되어 있지 않아 단일 분류기호인 326.39에 자료가 집중되어 있으며, 이들 자료의 분석결과 관광경영, 관광유형, 관광개발, 관광심리 및 관광객, 관광산업, 컨벤션 등의 주제어에 자료 빈도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셋째, 분류항목의 수정 전개는 원칙적으로 관광학의 학문체계와 주제어 분석을 바탕으로 하였으며, 기존의 KDC 분류체계를 가능한 한 그대로 유지하여 혼란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분류체계 수정 전개안을 바탕으로 KDC 제6판 상관색인 범례에 따라 상관색인 수정 전개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관광학의 분류항목은 4개에서 39개로 늘어나고 상관색인어는 35개가 추가되었다.

참고문헌

- 교육과학기술부.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2012. <<http://www.nrf.re.kr/>> [인용 2014. 1. 10].
- 국립중앙도서관. 대한민국 국가서지 2012. 서울 : 국립중앙도서관, 2013.
- 권문호. “관광의 분류 체계와 학문적 접근방법에 관한 연구: 관광경영학 관점을 중심으로.” 관광·레저연구, 제25권, 제4호(2013), pp.275-288.
- 김계섭. “觀光資源의 分類體系에 關한 研究.”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제5권, 제1호(1988), pp.103-119.
- 김사현. “관광학의 분류체계에 관한 고찰.” 관광개발연구, 제2권(1984), pp.5-14.
- 김성혁. 관광학원론, 개정판. 서울 : 형설출판사, 2009.
- 김수정. “KDC 제6판 디자인학 분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24권, 제3호

- (2013), pp.53-72.
- 김자후. “KDC 5판 기초법학 부문 개선방안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3권, 제4호(2012), pp.5-22.
- 김정만. 관광학개론, 개정증보판. 서울 : 형설출판사, 2010.
- 김정현. “한국십진분류법 제5판 의류학 분야의 수정 전개 방안.”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3권, 제3호(2012), pp.101-120.
- 김중은. 관광학원론, 개정판. 서울 : 현학사, 2004.
- 박상수. 관광학원론. 서울 : 형설출판사, 2004.
- 박재혁, 김비연. “통계학의 학문적 특성에 따른 KDC 문헌분류의 개선방안.”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4권, 제2호(2013), pp.399-422.
- 손해식, 여호근. “관광문헌 분류에 관한 연구 : 한국학술진흥재단 관광학 분류기준을 중심으로.” 아태관광연구, 제4권(1999), pp.7-24.
- 여지숙, 공성훈, 오동근. “KDC 제5판 건축학 분야 전개의 개선방안.”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7권, 제2호(2013), pp.359-376.
- 유준상, 안대회, 김용순. 관광의 이해. 서울 : 대왕사, 2005.
- 이월계. 한국 관광학 연구의 동향 : 관광관련학과 학위논문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강원대학교 경영대학원 관광경영학과, 2010.
- 이정학. 관광학원론. 서울 : 대왕사, 2010.
- 이지연, 김정현. “관광분야의 새로운 분류체계 설계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연구, 제43권, 제3호(2012), pp.79-95.
- 이창수. “KDC 역사보조학 분야 분류체계의 개선방안.”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4권, 제3호(2013), pp.29-49.
- 이흥윤. “레저산업의 분류체계에 관한 연구.” 관광경영학연구, 제3권(1998), pp.53-71.
- 이희진, 김정현. “한국십진분류법 제6판 체육학 분야의 분류체계 개선방안.”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제24권, 제4호(2013), pp.301-317.
- 정유경 외. “호텔외식경영분야의 학문적 분류체계에 대한 연구.” 관광학연구, 제33권, 제5권(2009), pp.479-489.
- 조은정. 인터넷 관광정보 분류체계 연구 : 국내 주요 관광정보사이트를 대상으로. 박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대학원, 호텔관광경영학과, 2010.
- 한경신. “한국십진분류법 한국음악 분류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3권, 제4호(2012), pp.297-316.
- 한국도서관협회. 한국십진분류법, 제6판. 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2013.

- 한국연구재단. 학술연구분야분류표, 2013. <<http://www.nrf.re.kr/>> [인용 2014. 1. 10].
- 日本圖書館協會. 日本十進分類法, 新訂9版. 東京 : 日本圖書館協會, 2005.
- British Standard Institution. *Universal Decimal Classification*, Standard ed. London : British Standard Institution, 2005.
- Goledner, Charles R. etc. *Tourism : Principles, Practices, Philosophies*, 11th ed, New Jersey : John Wiley, 2009.
- Library of Congress Classification System. *Super LCCS: Gale's Library of Congress Classification Schedules Combined with Additions and Changes, Class G, Class H, Class N, Class S, Class T*, 2005 ed. Detroit : Gale Research, 2005.
- Melvil Dewey.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and Relative Index*, 23th ed. Dublin, Ohio : OCLC Online Computer Library Center, 2011.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Cho, Eunjung. *A Study on Tourism Information Classification System on Internet*. Ph.D. diss., Sejong University, 2010.
- Chong, Yu-Kyeong etc. "A Research on the Academic Classification for the Hotel and Foodservice Management Field." *Journal of Tourism Sciences*, Vol.33, No.5(2009), pp.479-489.
- Hahn, Kyungshin. "A Study on the Korean Music Schedules of KDC."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Vol.43, No.3(2012), pp.297-316.
- Kim, Gye-Sup. "A Study on Classification System of Tourism Resources." *Journal of Leisure and Recreation Studies*, Vol.5, No.1(1988), pp.103-119.
- Kim, Ja-Hoo. "A Study on the Developing Modifications of KDC 5th ed. in Jurisprudence Field."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Vol.43, No.4(2012), pp.5-22.
- Kim, Jeong-Hyen. "The Improvements of the Clothing and Textiles Field in the 5th Edition of KDC."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Vol.43, No.3(2012), pp.101-120.
- Kim, Jeong-Man. *Introduction to Tourism*, Revised and Enlarged ed. Seoul : Hyungseul, 2010.
- Kim Jong-Eun. *Tourism: an Introduction to*, Revised ed. Seoul : Hyunhaksa, 2004.
- Kim, Sa-Hun. "A Study on the Classification System of Tourism." *Journal of Tourism*

- Development*, Vol.2(1984), pp.5-14.
- Kim, Soojung. "A Study on the Improvements of the Design Field in the 6th Edition of the Korean Decimal Classification(KDC)." *Journal of the Korean Bibliology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Vol.24, No.3(2013), pp.53-72.
- Kim, Sung-Hyuk. *Tourism: an Introduction to*, Revised ed. Seoul : Hyungseul, 2009.
- Korea. 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 *National Standard Science and Technology Classification*, 2012. <<http://www.nrf.re.kr/>> [cited 2014. 1. 10].
- Korean Library Association. *Korean Decimal Classification and Relative Index*, 6th ed. Seoul : Korean Library Association, 2013.
- Kwon, Mun-Ho. "A Study on the Scholarly Approach and Academic Classification in the Tourism: Focused on Tourism Management Perspective." *Journal of Tourism and Leisure*, Vol.25, No.4 (2013), pp.275-288.
- Lee, Changsoo. "The Improvements of Classification System of the Auxiliary Sciences of History Field in the KDC 5th Edition."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Vol.44, No.3(2013), pp.29-49.
- Lee, Hee-Jin & Jeong-Hyen Kim. "The Improvements of the Physical Education Field in the 6th Edition of KDC." *Journal of the Korean Bibliology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Vol.24, No.4(2013), pp.301-317.
- Lee, Heungyoon. "The Classification System of Leisure of Industry." *Journal of Tourism Management Research*, Vol.3(1998), pp.53-71.
- Lee, Jeoung Hak. *ITourism: an Introduction to*. Seoul : Daewangsa, 2010.
- Lee, Ji-Yeon & Jeong-Hyen Kim. "A Study on the Design of Library Classification in the Tourism Field." *Journal of Information Management*, Vol.43, No.3(2012), pp.79-95.
- Lee, Wuel-Kye. *Tourism Research Trend in Korea: Based on the Dissertation of Tourism Related Department*. Master's thesis, Kangwon National University, 2010.
- National Library of Korea. *2012 Korean National Bibliography*. Seoul : National Library of Korea, 2013.
-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Research Fields Code*, 2013. <<http://www.nrf.re.kr/>> [cited 2014. 1. 10].
- Park, Jae Hyeok & Bee Yean Kim. "Suggestions for KDC Improvement According to Academic Characteristics of Statistic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Vol.44, No.2(2013), pp.399-422.

- Park, Sang Soo. *Introduction to Tourism*. Seoul : Hyungseul, 2004.
- Sohn, Hai-Sik & Ho Keun Yeo. "A Study on the Classification of Tourism Literature." *Asia Pacific Journal of Tourism Research*, Vol.(1999), pp.7-24.
- Yeo, Ji-Suk, Song-Hoon Kong, Dong-Geun Oh. "Improvements and Modifications of the Subject, Architecture Engineering, in the 5th Edition of the Korean Decimal Classificat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Vol.47, No.2(2013), pp.359-376.
- Yoo, Jun Sang, Dae-Hee Ahn, Yong-Soon Kim. *Understanding Tourism*. Seoul : Daewangsa, 2005.

